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정읍 만든다

시, 전담 조직 태스크포스팀 신설
3대 추진전략…대응 매뉴얼 마련
도로·교량·체육시설 관리 강화

정읍시가 중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중대 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보건 경영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읍시에 따르면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철저한 책임 의식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 중대 재해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정읍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체계적인 중대 재해 관리를 위해 전담 조직인 '중대 재해 태스크포스팀(TF팀)'을 신설했다. TF팀은 3대 추진전략에 맞춰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대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에 걸린 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는 또 다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도로 교량, 체육시설, 청사 등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이에 따른 보수·보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향후 계획에 따라 안전 점검 및 직원 대상 교육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중대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국내 최대 익스트림 시설 '지리산허브밸리 스카이트레일' 개장

한달간 시험운영 2500여명 이용
63개 코스 완주 모험 레포츠 시설

지리산허브밸리 스카이트레일이 운영을 시작했다.

남원에 국내 최대규모의 복합 익스트림 스포츠 체험시설이 문을 열었다.

남원시는 복합 익스트림 스포츠 체험시설 '지리산허브밸리 스카이트레일'이 한달간의 시험운영을 마치고 지난 21일 정식 개장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임시 개장해 1개월간 시험운영된 스카이트레일은 2500여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했으며 청소년과 어린이 고객이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시설이다.

운봉읍 용산리 지리산허브밸리 스카이트레일은 지상 3층 높이(최고 14.25m)의 오각형 형태 타워로 63개 장애물 코스를 완주하는 모험 레포츠 시설이다. 다양한 코스 중에서도 지상 3층 높이에서 지상 2층으로 한 번에 내려갈 수 있는 집라인이 인기코스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청소년들의 담력 쌓기와 건전한 신체활동에 제격인 스카이트레일은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활동 코스로도 이용될 전망이다. 이용요금은 성인 기준 2만원이지만 개장기념 할인가를 적용해 1만5000원에 이용할 수 있고 남원시민은 1만원을 받는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군산시 "아픈 나무 무료 진찰해 드립니다"

피해원인 정밀조사 서비스
학교·공원숲 등 생활권 녹지 대상

나무병원의 민간수목진료 전문가가 훼손된 나무를 찾아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생활권 녹지 아픈 나무 무료 진찰해드립니다."

군산시가 아픈 나무를 무료로 진찰하는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나무병원의 민간수목진료 전문가가 현장 방문해 해충, 잘못된 농약 사용, 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훼손된 나무의 피해원인을 정밀히 조사하고 적정 방제법, 수목 관리방법 등 효과적인 처방을 내리게 된다.

학교숲, 청소년시설, 공원, 가로수, 녹지대, 공공시설, 기타 민원지역 등 다중이용 생활권 녹지를 대상으로 생리적 피해와 병해충 등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시민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나무의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목진료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해져 이번 수목진단서비스를 통해 수목에 대한 지식과 관리에 필요한 수목정보를 함께 받을 좋은 기회다.

수목진료 비용은 무료이며, 다만 컨설팅 결과에 따른 수목 방제나 치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다중이용 생활권 녹지가 아닌 개인소유의 녹지와 수목 등은 제외된다.

시는 오는 10월 6일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며 14개소 접수 마감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컨설팅을 원하는 기관과 개인은 군산시 산림녹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접수해 시행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새단장을 마친 장군목 현수교.

순창군 장군목 현수교 출렁다리 새단장

도색 등 보수공사 완료

순창 장군목 현수교 출렁다리가 빨간색의 교탑을 중심으로 새롭게 보수됐다.

순창군은 장군목 현수교의 보수공사가 완료돼 12년간 이용하며 색이 바랜 교탑과 주각 부분들이 새로 도색되면서 멀리서도 눈에 띄는 특색있는 현수교로 탈바꿈했다.

보수공사를 통해 새롭게 바뀐 장군목 현수교는 요강바위와 더불어 장군목 유원지의 핵심 관광시설로써 연장 107m, 통과 폭 2.4m의 출렁다리다.

세굴방지공을 조경석으로 설치해 현수교의 교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조경석이 주변과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특히 현수교 중앙에 인명구조함과 망원경을 설치해 혹시 모를 위험상황에 대비함은 물론 망원경을 통해 용궐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현수교에서도 느낄 수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새롭게 태어난 장군목 현수교가 순창을 찾는 방문객이 꼭 방문해야 할 순창의 관광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익산서 24일부터 700명 참가 전국육상대회

익산지역에서 전국단위 체육대회가 진행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익산시에 따르면 24일부터 26일까지 'Amazing 익산 2022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 시리즈 대회 겸 제 77회 전국대학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개최된다.

익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한국실업육상연맹과 한국대학육상연맹 주최, 전북도육상연맹과 익산시육상연맹이 주관하고 전북도와 익산시가 후원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남자부, 여자부 각각 23종목과 남녀혼성릴레이 1종목 등 전체 47개 종목이 펼쳐진다.

올해는 700여 명(실업450명, 대학250명)의 선수를 포함한 1200여 명이 익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은 누구나 무료로 현장 관람할 수 있으며 '아이탑21'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또 오는 8월에는 전국실업육상경기 시리즈 대회의 마지막인 5차 대회를 개최된다.

시는 연이은 전국규모 대회 개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체육계가 활기 넘치기를 바란다"며 "많은 선수들이 찾는 전국규모의 행사인 만큼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고창군, 드론 직파·드문모 심기 재배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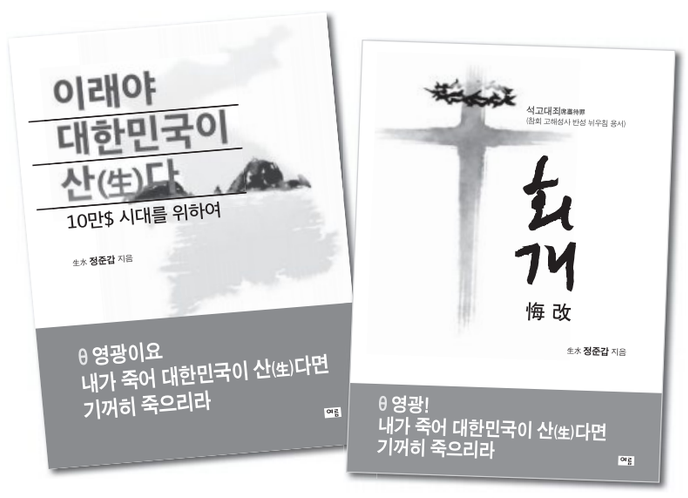
고창군이 드론 직파와 드문모 심기 재배기술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아산면 벼 직파재배단지 시범사업 단지에서 원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노석원 박사를 초청해 저탄소 안정생산 벼 드론 직파 재배기술과 드문모 심기에 대해 농업인들에게 핵심기술을 전달하고 농가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군 드론 직파 시범사업은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드론 직파재배단지 시범사업농가에게는 규산종자코팅과 도복경감 기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농자재, 직파 재배전용 드론을 지원할 예정이다.

드론 직파는 이앙까지 필요한 노동력을 최대 90% 절감할 수 있고, 경영비도 85%가량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드문모 심기도 농업생산비 절감과 모판수 감소 등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자당 적정량(280~300g)과 모기르기 일수(파종후 13~16일)를 잘 지키는 등 육묘관리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生水 정준갑 지음 | 17,000원 | 13,000원 | 도서출판 여름(문의 : 02-2278-6990)

대죄인 **정 준 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고난주간(4.11.~4.17.)

＊책 내용을 宗教적으로만 보지말고 精神으로 보아주시고 아파트경비원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록한 글

＊저자에게 주어진 도서 수익금은 전액 공익 기부함.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도 우리 땅 혼슈우는 즈그땅
(쓰시마)

아! 大 한국人이여! 일어나라
아! 大 한국人이여! 깨어(나)라
아! 大 한국人이여! 거듭나라
가슴·마음속에 숨어있는 민족 얼·혼·恨·통분·울분에
함성을 함께 외쳐라·뭉쳐라·밝혀라·세워라·행하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간다.
(회개/고해성사/참회/반성/뉘우침)

1인당 국민소득 10만＄ 시대가 보인다.

타도하자 공산 독재주의
바로 알자 공산주의 사상
때려잡자 공산당
쳐부수자 마귀/귀신 미혹의 영
일깨우자 사회주의
개선하자 자유민족주의
바로 세우자 자유민주공화국
정립하자 자유민주주의
개벽하자 타락한 세상(세계)

온고지신(溫故知新)하는 정권이 되기를~

★창조주 여호와 θ께 회개하오며 국민께 고해성사와 참회를 하오니
괴수·금수만도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하옵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θ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8-28)

★이 책은 대한민국을 구제할 민족정신지도자 66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죄인이 국민·광주시민·호남인에게 드리는 글이 있습니다.

★전국광역시/도 및 각 시·군·구에 33인 정신지도자 선정.
[개신교 16인, 천주교 8인(성공회 1인 포함), 불교 8인(원불교 1인 포함), 유림1인]

詩 : 恨
무등산아! 무등산아! 너는 왜 그러고 있니!
나는 하염없는 인생이다만,
너까지 하염없는 모습으로 그러고 있니!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하여도,
너는 떳떳한 것을,
왜 그리 처량하니 지켜만 보고 있니!
자존심을 지켜다오. 자긍심을 살려다오.
자존감을 올려다오.
무등산아! 무등산아! 울지 마라. 무등산아!
힘내어라. 무등산아!